

---

# 2021년 제14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1. 4. 2. ~ 4. 8.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4. 3.	시청률	0.150

### 【총 평】

‘진안고원에 간 특급호텔 셰프’는 유명 호텔 요리사에서 건강과 행복을 찾아 전북 진안으로 내려온 36년 차 부부이자 11년 차 초보 농부 부부가 겪는 귀농 이야기다. 소백산 정기를 머금은 전북 진안에서 농가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귀농 11년 차 부부의 담백한 삶을 그려냈다. 건강한 땅에서 좋은 음식을 만들며 알콩달콩 행복을 누리는 요리사 부부의 인생 2막 슬로푸드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려내어 시청자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특히, 생각보다 크고 작은 산들이 많아 산간 오지랄 수 있는 전북 진안군, 굽이굽이 넘어 진안으로 가는 길이나 가로수길 부감 샷, 드론으로 찍은 영상, 디테일이 살아있는 앵글 등 힘 있고 섬세한 연출로 전북 진안 지역을 아름답게 그려냈고 주인공들의 사연을 풍성하게 끌어냈다.

### 【구성 및 내용】

주인공은 서울 유명한 호텔인 쉐라톤 호텔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15년 간 요리사 일과 노조활동을 하다 보니 ‘희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가치관의 혼란으로 결국 아내와 전북 진안에 정착하게 되었다. 특히, 50년 된 도자기 터를 농가 레스토랑으로 개조시킨 주인공 부부의 넉넉한 인심은 집에 잘 드러나고 있다. 주인공 부부는 식당 고객들에게 프랑스식 요리를 즐기는 호사를 선물하고 있었다.

전북 진안에서 펼친 호텔급 서양요리는 물론, 지역 학교 마린이들(마령고등학교 요리 초보)과의 요리 수업 등은 여전히 부부를 바쁘게 하지만, 호텔에서 근무하던 예전과 달라진 점은 바빠도 행복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점이다.

요리사가 고집한 요리 재료 덕에 산골 레스토랑에서 펼치는 다양한 서양식 메뉴는 소백산 줄기 지역민들과 관광객에게 입맛을 돋우고 있다. 식당 옆 텃밭에서 재배한 농산물과 지역 농축산물로 좋은 식재료, 건강한 음식만을 고집하는 부부의 슬로우 푸드 철학 덕분에 농가 레스토랑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고 한적한 고갯길에서 프랑스 요리를 선물하고 있다. 귀촌 11년 차이지만 여전히 농사는 초보인 주인공 부부는 오늘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자연의 섭리를 따르면서 맛있고 건강한 요리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주인공의 소박하면서도 고집스러운 요리 철학, 그리고 원가 계산 보다는 먹고 사는 것에 감사와 재미를 느낀다는 부부의 귀촌 이야기는 즐거움과 선한 영향력을 선사했다.

굉장히 화려한 메뉴 소개와 함께 부부의 인생 이야기며 소신에 관한 이야기들, 소소한 부부의 일상까지 적절하게 잘 섞여 있어서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전반부에는 레스토랑 시설이나 메뉴에 관한 분량이 집중되어 있었면 후반부에는 그 외적인 일상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담아냈고, 앞으로의 계획과 요리사로서 목표를 언급하며 마무리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0. 4. 3.	시청률	0.042

### 【총 평】

‘붓 한자루에 담긴 인생 소리’는 대나무 고장인 전남 담양에서 전통 붓의 품격을 잊지 않으려는 채태원 필장의 붓 외길을 풍경 소리에 담았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필장이 만드는 죽필과 솥염소의 털로 만드는 모필, 그리고 칩나무로 만드는 갈필, 이 붓들을 만드는 과정을 뛰어난 영상과 섬세한 소리를 통해 들려주었다. 특히, 붓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소개를 통해 죽필, 갈필이란 붓의 종류와 장인의 손길을 통해 붓으로 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붓 한 자루가 탄생하기까지의 여정을 대나무처럼 단단하게 그려냈고, 필장의 숨결이 느껴졌다.

### 【구성 및 내용】

전반적인 구성을 붓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했는데, 대나무를 베어와 삶고 쪼개어 만드는 죽필, 솥염소의 털로 만드는 모필, 칩으로 만드는 갈필을 소개했다. 특히, 먹 가는 소리와 대금 소리, 대나무 풍경으로 이루어진 도입부분은 압축적으로 편집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다.

대나무 밭으로 이동해서 대나무를 베어내며, 대나무로 만든 죽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었고, 대나무를 삶아서 껍질을 벗기고 쪼개고 하는 장면이 매우 신기했고, 대나무만으로 붓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사실 놀라웠고, 대나무로 붓의 털까지 만든다고 해서 매우 놀라웠다. 채태원 필장이 죽필을 야생마에 비유하며 길들이는 맛이 있다고 표현하며, 붓으로 글씨를 써내려가는 모습이 매력을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모필은 솥염소의 털로 만드는 붓으로 죽필이 하나하나 섬유질을 찢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면 모필은 하나하나의 털을 일일이 다 다듬고 묶어서 만든다. 모필은 마치 여우처럼 멧을 잘 부리고 작가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준다고 하며, 직접 글씨를 써 보여 모필만의 장점이 잘 부각되었다. 또한, 칩나무를 활용하여 갈필을 만들어 필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칩나무 껍질을 벗기고 망치로 수 천 번을 두들겨 칩나무 섬유질이 붓의 실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주인공이 직접 칩을 캐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칩을 두드리고 빋고 하면서 공을 들어 붓을 제작하는 장면을 소개했는데, 자연소재로 만든 붓은 독특한 자기만의 서체를 완성시켜준다는 장인의 말도 아주 설득력이 있었다.

대나무의 풍경소리, 죽필, 모필, 갈필의 다양한 모습의 풍경소리, 다양한 형태의 붓이 탄생하기까지의 인고의 시간이 빛나는 풍경소리가 고풍스럽게 펼쳐졌다. 죽필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죽필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죽필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노고와 인고의 시간, 장인의 섬세함과 노련함을 전해주었다. 다양한 붓의 종류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일상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붓이지만 수많은 손길과 인고의 시간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4. 3.	시청률	0.020

## 【총 평】

<친절한 이슈 토크>는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소재로 향후 북미관계를 전망해 보았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도발하는 속내 배경을 분석하고 4월 중 예정된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 내용을 전망해 보았다. <이슈 텔링>은 한미 간 이슈인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둘러싼, 전작권 환수 조건, 전작권 환수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과 제언을 해결책으로 제시해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왜 전작권 회수가 필요하고 우리 정부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제시해 주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상식을 보완하고 향간에 유행하고 있는 부질없는 논쟁을 잠재우는 차원에서 의미 있었다.

## 【구성 및 내용】

미국의 대북정책의 향방을 예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색이 있었는데 시의적절 했다. 특히,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의 북 비핵화 협력 재확인, 유엔 결의 이행 필요, 북미협상 조기 재개 노력 계속 방침 등의 내용을 전했다.

최근 북한에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3월, 2차례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했다. 이는 아마도 미중, 중동 문제에 밀리지 않기 위한 모습으로 일정의 북한의 생존전략으로 보인다. 추가 도발의 가능성도 예측된다. 미국은 바이든의 대통령의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북한 접근 방식이 다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관리할 수도 있고, 미국이 스스로 압박과 점진적 접근을 제시하고 북한의 선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짝 막힌 북미관계를 '고구마 먹고 짝 막힌 느낌', '퇴근길 강변북로 같다'는 표현이 이해를 쉽게 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북미 관계를 짚어주어 이해를 도왔으며, 북미 간 실무회담의 필요성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배경과 의도 등을 분석해 설득력 있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를 예측해 흥미를 이끌었고,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중국을 통해 북한을 관리할 가능성, 미국식 압박과 점진적 접근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무엇이고 이것을 환수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FOC, FMC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이해를 도왔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그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도 의미 있었다.

전작권 전환은 "가슴보다 머리로"해야 하고, "신속함보다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제언으로 다가왔다. 전작권 회수 3조건, 한미가 참여한 3단계 검증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현재 상황,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과 미국의 관계 변화 등을 깊이 있게 진단해 이해도를 높였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우리의 자체 국방력, 북한에 대한 초기 대응력,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등으로 꼽고 우리 정부의 현재 상황과 문제인 정부 임기 내 환수 가능성, 필요한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4. 3.	시청률	0.093

### 【총 평】

“비대면 소통 ‘온통 서산’…민원·시정 제안 통로”는 비대면 소통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충청남도 서산시의 선진행정을 소개했고, “버스정류장 설치해주세요…버스노선 조정 갈등 해결”은 버스정류장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을 지자체의 조정과 소통으로 해결방안을 찾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온통서산’의 경우 주민이 제안한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이를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사례가 돋보였다. 폐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환경문제 해결이 주민 제안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참여도를 제고하는 동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버스노선 조정으로 갈등을 해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례는 통과 조정으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했다.

### 【구성 및 내용】

서산시의 ‘온통서산’은 적극적인 행정과 시민의 참여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좋은 사례였고 대구 달성군의 버스정류장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갈등을 해결한 케이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서산시의 ‘온통서산’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주민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을 잘 보여주는 케이스로 이런 움직임이 궁극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주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아이스팩 재활용’은 좋은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스템 자체도 주민과 행정당국의 협업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시민이 제안한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함, 불법 현수막 설치자에 대한 자동 경고장, 주민이 연대한 정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신고 등 서산 시민과 시청이 함께한 정책 실행 현장을 소개하여 시청자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제공하였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오프라인 접수 계획도 밝혀 서산시가 정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구나 하는 점이 자연스럽게 부각되었다.

대구 달성군의 버스정류장 문제는 아파트 단지에 정류장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와 기존 마을 정류장을 어떻게 조정하여 민원을 해결했는지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행정당국의 중재도 힘을 발휘했지만 갈등의 중심에 있는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단순히 민원을 해결했다는 결과론적인 구성이 아닌, 생활 속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민원 절차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계도 과정의 효과와 조정 과정은 어땠는지 등 다각적인 면에서 살펴보고, 절차과정과 조정 과정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촘촘하게 다뤄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 제공은 물론 유익함까지 제공하였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4. 4.	시청률	0.000

### 【총 평】

‘완치자 두 번 올리는 코로나19 차별’은 완치 판정을 받고서도 한 때 코로나19 확진 경험자라는 ‘낙인효과’로 냉대 받고 갖가지 불이익에 고통 받는 완치자의 실태와 문제점, 정부의 대응책을 차례로 짚어봤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에 가려 주홍 글씨에 찍힌 완치자 피해 사례를 조명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세균 총리의 메시지 내용이 ‘완치자 재검사 불필요’, ‘소외 받은 완치자 위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대책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줘 논란을 불식시킨 점이 돋보였다.

###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감염된 후 완치된 사람들이 겪는 이중고는 심각 했다. 회사의 냉대는 물론 재검사를 요구 받고 보험사와 요양병원으로부터 외면 받는다 하면 후유증 치료도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등 낙인 효과로 완치자를 두 번 올리는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완치자 재검사 불필요 확증, 완치자 보호 사각 지대, 완치자 일상 복귀 대책 마련, 부당 행위 대응 등의 순으로 문제의 핵심과 대책 마련으로 이어진 구성이 메시지 전달력을 살렸다. 완치 판정을 받고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차별받는 실태를 고발하며 문제를 제기한 점이 관심을 유발했다. 완치자가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대책을 조목조목 짚어간 점이 설득력과 공감도를 높였다. 정부의 완치자 보호를 위해 회사의 부당행위 대응, 불이익 차별대우 대처, 보험사 부당행위 점검 강화, 확진자 모니터링 및 후유증 치료비 지원 등 대책 마련 내용을 소개했다.

PCR 음성확인서 요구, 재택근무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 등 일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이 편견과 차별적 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인식을 전환을 요구했는데 설득력 있는 내용 전개가 인상적이었다. 완치된 사람들을 잠정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해자로 몰아가는 상황을 지적하고 이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짚었다.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완치자가 치러야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미루어 악전고투 그 자체임을 잘 느낄 수 있었다. 또, ‘완치 그 후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었다. 그리고 보험회사와 요양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적 행위를 아울러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소개한 점도 좋았다. 이 밖에 보험회사나 요양병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효과적인 취재방법이었다.

프로그램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뭘니?		
방송일자	2020. 4. 4.	시청률	0.054

### 【총 평】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이 사회문제화 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심리 치료 지원정책과 노후 경유차 감축으로 미세먼지 확산을 막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정책을 방송했다. 코로나19 심리치료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정신건강검진 개편, 정신건강정보포털, 근로복지넷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소개해 주었다. 조기폐차 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등을 전해주었다.

###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일명 코로나블루로 불리는 심리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이와 관련한 지원 제도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프로그램'이라는 앱 그리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딱 맞는 유용한 정보였다. 최근에 바뀐 우울증 진단 시기와 관련한 내용도 좋았고 특히 국가정신건강포털에서 사전에 온라인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 친절하고 자상한 느낌을 줬다.

코로나19로 인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정신건강검진 개편 내용을 안내해 시의성 높은 정보였고, 이에 따른 검진 방법을 소개했다. 또, 온라인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소개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했다. 직무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넷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활용할 수 있다. 직원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기업들이 도입한 복지제도로 조직 내 소통, 직무 스트레스, 업무역량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과태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후 경유차 등급 분류 내용과 5등급 차량에 대한 제한과 과태료, 저감장치 설치법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시청자가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게 도왔다. 또,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폐차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금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생계형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기 폐차 시 70%인 420만원, 폐차 이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 구매 시 나머지 30%인 180만원을 지원받는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미래 환경을 생각하면서 보조금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해 메시지 완성도를 높였다. 수소차 및 전기차 등의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가 대표적이다. 특히 수소차 및 전기차의 경우 정부에서도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세제감면혜택도 제공된다. 새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는 메시지도 효과적이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0. 4. 4.	시청률	0.000

### 【총 평】

“기후 위기를 극복한다! - 탄소 중립 그린 에너지”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그린에너지는 무엇인지, 에너지 자립을 꿈꾸며 자연과 상생하는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본 시간이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석탄 발전을 그린에너지로 바꾸는 일이고 이를 포함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소개했다. 한국판 뉴딜 과제 중 하나인 그린에너지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짚어보았고, 시청자들에게 우리나라가 온실 가스 배출량 세계 11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라는 현실을 인식시켰고, 그린에너지가 왜 필요한지, 탄소중립 정책에 경제 논리를 넣어야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린 에너지 사업은 “정치적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정치적인 것보다 정책적 관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인상적이었다.

### 【구성 및 내용】

그린 뉴딜의 핵심 가치인 그린 에너지는 2018년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1.5℃ 특별보고서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대의제가 나오고, 국내 또한 이에 발맞춰 오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린 뉴딜 중 그린 에너지 핵심 전략은 석탄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재생에너지와 그린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탄소 중립 정책의 국내 상황부터 시작해 핵심 전략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고 향후 정책의 방향까지 짚어봤다.

그린 뉴딜의 기본적 개념, 그린 뉴딜의 경제적 관점인 산업과 일자리의 대변화 예고, 탄소중립 제로 달성 목표와 재생 에너지정책 2030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린뉴딜을 이루기 위한 탄소중립정책 방향은 결국 국내 산업과 사회경제적 전반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일자리 전환을 가져오는 대변혁을 갖는 정책임을 설명했다.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태양광 시설 설치 전후로 전기세가 거의 90% 절감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집 내부로 들어가 어떻게 에너지를 저장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소개되었고, 그 동안 생소했던 지열 난방에 대해서도 소개되었다.

제주도의 풍력단지가 조성된 가시리 마을은 단지 조성 이전에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현재는 축산에 피해도 없고 부가적인 이익도 더 많다는 점을 십분 강조했다. 그린 에너지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꽤 명쾌하게 풀어준 느낌이 들었다. 마무리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조율을 강조하고 계획적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석탄발전중단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어느 것이 미래를 봤을 때 더 이익인가 하는 점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